

SNS 이용이 사회적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SNS Use on the Social Network: Moderating Effect of the Gender

한수영 (Su-Young Han)*
최문형 (Moon-Hyeong Choi)**
박미경 (Mi-kyung Park)***
이홍재 (Hong-Jae Le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SNS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SNS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SNS 이용이 결속적 네트워크와 교량적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SNS의 주 이용계층인 20~30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SNS 이용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SNS 이용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이용은 결속적 네트워크, 교량적 네트워크에 각각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 이용 영향요인과 SNS 이용 간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 간에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attitude on SNS us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NS use, (2) to analyze effect of SNS use on bonding network and bridging network, (3) to consider moderating effect of the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and Social network. We conducted a survey for 20-30's SNS user.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represent that attitude on SNS us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SNS use. SNS use affects bonding network and bridging network. An interesting result was observed that the gender had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use and social network.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키워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회적 네트워크, 결속적 네트워크, 교량적 네트워크, SNS
Social Network Service, social network, bonding network, bridging network, SNS

* 안양대학교 컴퓨터학과(syhan@anyang.co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cmh9747@naver.com)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qkralrud14@naver.com)
****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hongjaelee@daum.net)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3년 8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13년 9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13년 9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30(3), 133-156, 2013.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3.133]

1. 서론

사회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로써 특정 집단 내의 관계를 의미하며(Putnam, 2000), 신속한 정보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Pasek, More, & Romer, 2008).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들은 상호 관계를 맺으며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공간적 범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정보기술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몇몇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관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축소되어 사회자본이 감소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Kraut et al., 1998; Nie, 2001; Nie, Hillygus, & Erbring, 2002).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증가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신뢰와 규범, 사회적 참여 등 전반적인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는 동인(driver)임을 강조한다(Bargh & McKenna, 2004;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Katz & Rice, 2002; Shah, Kwak, & Holbert, 200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해 정보나 개인 일상 또는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공감이라는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신소연, 이상우, 2012, p. 192). SNS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이미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이들과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다. 신소연과 이상우(2012) 역시 SNS가 개인과 다수의 사람들을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와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Liu와 Tsai(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SNS 이용에 의한 현실의 사회적 고립이나 프라이버시 위협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SNS가 사회자본 형성 및 사회통합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박용석, 이경미, 이지원, 2012; 신소연, 이상우, 2012; 최지은, 이두희, 2013; Ahn, 2012). 이러한 이유로 SNS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중요한 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SNS 특성이나 품질에 따른 이용만족도, SNS 이용동기와 SNS 이용, SNS 이용과 정치행태 또는 정치참여 간의 관계,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SNS 이용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정보기술 수용이나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논의도 주목해야 할 논제이다. Nysveen, Pedersen, Thorbjornse(2005)은 성별에 따라 모바일채팅서비스 이용 동기가 상이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Hwang(2010) 또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용 의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실증한 바 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정보기술 수용이나 미디어 또는 SNS 이용과정과 그 성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금희조, 2010; 이혜인, 배영, 2011; 하승태, 2012; Venkatesh et al., 2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SNS 이용의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SNS 이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함의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계획된 행동이론과 SNS 이용

SNS는 웹상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송경재, 2010, p. 36). SNS 이용이란 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SNS를 이용하는 행동의 강도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SNS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SNS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 및 SNS 이용 간의 관계(서우중, 원옥연, 홍진원, 2010; 성혜진, 고재윤, 2012),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 그리고 인지된 즐거움 등과 같은 사용자 인지요인과 SNS 이용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이홍재, 최문형, 박미경, 2012; Choi & Chung, 2012; Kwon & Wen, 2010; Lin & Lu, 2011; Pai & Huang, 2011), SNS 이용 동기와 SNS 이용에 관한 연구(김봉섭, 2010; 김성훈, 김한주,

2012; 김위근, 최민재, 2012; 노지영, 주효진, 2012; 최영, 박선영, 2011; Chen, 2012; Smock et al., 2011)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SNS 이용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문제 중 하나인 SNS 이용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적용하고자 한다. TPB는 인간 행동을 예측·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이나 미디어 이용행위를 설명하는 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TPB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실제 행동으로 구성된(Fishbein & Ajzen, 1975). TPB에서 제시하고 있는 태도(attitude)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닌 '행동에 대한 태도'로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나 판단의 정도를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1991). 행동에 대한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갖는 신념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이홍재, 2013). 이를 SNS에 적용해보면 SNS 이용 행위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할수록 SNS 이용은 더 잘 발현될 수 있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은 특정 행동과 관련해 행위자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그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인지하는 것과 이에 대해 행위자가 동조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의미한다(Ajzen, 1988). 주관적 규범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준거인이 자신의 특정 행위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75). 예를 들어 자신의 주변 주요인물들이 SNS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추천하고 이러한 압력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SNS 이용은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행동의 실행이 용이하고 자기 의지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된다(Ajzen, 2002). 여기에서 자기 의지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는 통제신념(control belief)은 자신이 행동하기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지니고 있어서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넘어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확률에 대한 신념이다(한덕웅, 2006, p. 345). 따라서 SNS 이용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SNS 이용은 증가할 것이다.

TPB에 따르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의 자발적 수행의지를 의미하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매개로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연구에서 TPB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PB 수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실제 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하고 있다(윤미선, 이종현, 2012; 정혜선 외, 2003; Chow & Chen, 2009; Jamil & Mat, 2011; Stone, Jawahar, & Kisamore, 2010). 예를 들어 정혜선 외(2003)는 행동의도에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Luo(2002)는 웹 사

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웹 사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Cheung, Chang, Lai(2000) 역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주관적 규범과 유사한 사회적 요인이 인터넷 사용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들의 공통점은 초기 수용자가 아닌 정보기술을 이미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을 최초로 수용하거나 미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변수로 행동의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처럼 이미 SNS를 수용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SNS 이용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SNS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가 SNS 이용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SNS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이용은 TPB에서 설명하는 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중 성별은 다수의 연구에서 정보기술의 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Venkatesh 등(2003)은 정보기술 수용 및 이용에 관한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예상기대(effort expectancy)와 TPB의 주관적 규범에 해당되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동후와 손승혜(2006)는 여성이 휴대전화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의

채택에 있어 남성보다 더 적극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배진한(2006)의 연구에서도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모바일 콘텐츠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SNS 이용과정에서도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들에 기초해 본 연구는 SNS 이용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2.2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본이란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Coleman, 1988). Putnam(2000)은 네트워크 특성에 기반하여 사회자본을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교량적 사회자본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인구사회학적 또는 가치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반면 결속적 사회자본은 유사한 배경을 바탕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질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망이다.

Putnam(2000)의 사회자본 유형화 논리는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속적 네트워크는 유사한 배경과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강한 관계망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질적인 사람들 간

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Granovetter(1973)의 강한 연결(strong tie)과 유사하다. 결속적 네트워크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외집단(out-group)의 적대감을 야기할 수도 있고(Williams, 2006, p. 597), 개인들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신소연, 이상우, 2012, p. 197). 반면 교량적 네트워크는 상이한 배경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약한 관계망을 의미한다(이승민, 2013, p. 163). 폭넓은 관계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일시적이고 질적으로 약한 결속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Putnam, 2000). 이는 Granovetter(1973)가 제시한 연결 유형중 약한 연결(weak tie)과 유사하다. 결국 결속적 네트워크는 동질성과 배타성(embeddedness)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교량적 네트워크는 이질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외부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및 정보공유를 지향한다.

SNS는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일부는 SNS 이용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결속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도 있고, 일부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교량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

2.3 SNS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

SNS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최근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SNS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SNS 이용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SNS 이용 동기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영과 박성현(2011)은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추구, 자긍심 표출, 추억공유, 사회 상호작용, 기분전환·여가, 정체성 표현, 유행성 등과 같은 SNS 이용동기는 사회자본의 사적차원(표출적 보상, 도구적 보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 상호작용을 제외한 이용동기들은 공적차원(대인신뢰, 제도신뢰, 공적활동의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노지영과 주효진(201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목적(인간관계형성, 정보획득, 공감형성)이 사회자본(표출적, 도구적, 온라인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간관계형성만이 사회자본(표출적, 도구적, 온라인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봉섭(2010)의 경우 블로그 이용동기(정보추구, 상호작용, 자아추구, 도피·휴식)와 사회적 관계 유형(교량적, 결속적)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결속적 네트워크에는 정보추구 상호작용, 자아추구 등의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량적 네트워크에는 정보추구 요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 금희조(2010)는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셜미디어 이용과 참여적

사회자본 간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Ellison 등(2007)과 Ahn(2012)는 SNS 이용과 사회자본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면서 SNS 이용이 증가될수록 결속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교량적 네트워크 역시 강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승민(2013) 역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활용이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석승혜 등(2013)은 SNS 이용이 온라인 내에서의 결속적 사회자본과 교량적 사회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SNS 이용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Donath & boyd(2004)는 SNS가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관계형성보다 쉽고 특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SNS가 다수의 약한 연대를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Steinfield 등(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이용 강도와 삶의 만족도, 자부심, 교량적 사회자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교량적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tak, Ellison, Steinfield(2011)도 페이스북 이용이 교량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인 심홍진과 황유선(2010) 역시 트위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트위터 이용 강도가 결속적 사회자본보다 교량적 사회자본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Chen, Goh, Li(2010)은 페이스북이 부모와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와 아이관계

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고 설명한다. 이는 SNS가 비슷한 배경이나 특성을 공유하는 결속적 네트워크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긍정적 관계가 보고되고 있지만 SNS 이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NS 이용과 사회자본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곽현근, 유현숙, 2011; 박희봉, 이희창, 2006; 이해인, 배영, 2011). Marsden(1987)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족과 친척을 통한 사회자본 이용 경향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 친척 이외의 네트워크를 주로 이용한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희봉과 이희창(2006)은 여성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동질적 성향의 집단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반면 남성은 직장 상사와 이질적 단체 참여 및 정치참여와 같은 이질적 성향의 집단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강내원, 안순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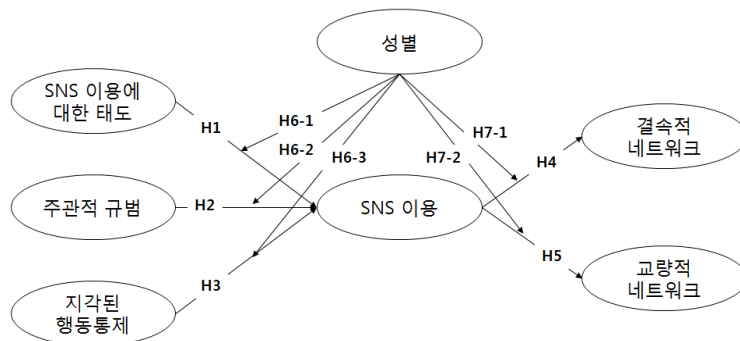
형석(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자본이 차이가 있으며, 남성일수록 사회 연결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곽현근과 유현숙(2011)의 연구에서는 주민조직 참여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사회자본(결속적, 교량적, 연계적)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인과 배영(2011)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와 이용 정도,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 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외생변수인 SNS 이용의 영향요인, 내생변수인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성별요인 등으로 구성된다. SNS 이용 영향요인은 TPB에서 제시하고 있는 SNS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요인은 결속적 네트워크와 교량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연구모형을 토대로 할 때 SNS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일수록 SNS 이용은 증가하고, SNS 이용은 결속적 네트워크와 교량적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성별은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연구가설

3.2.1 SNS 이용과 영향요인

TPB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설명하는 영향요인이다(Ajzen, 1991; Cheung, Chang, & Lai, 2000; Chow & Chen, 2009; Jamil & Mat, 2011). 특정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경우 행동은 더욱 잘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준거인이 특정 행위를 지지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특정 행동은 증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 이용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준거인이 SNS 이용을 권유하거나 추천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SNS 이용행

위는 증가할 것이다. SNS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에 관한 사회적 압력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SNS 이용 능력이 충분치 않다면 SNS 이용 행위는 발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SNS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주관적 규범은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지각된 행동통제는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많은 연구들에서 SNS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긍정적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석승혜 외, 2013; 이승민, 2013; Ahn, 2012; Chen, Goh, & Li, 2010;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Steinfield, Ellison, & Lampe, 2008). 이들의 공통점은 SNS 이용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SNS 이용은 사용자들 간의 빈번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기존의 관계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새로운 관계망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결속적 네트워크는 물론 광범위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이질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 이용은 결속적, 교량적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다음의 가설설정이 가능하다.

〈가설4〉 SNS 이용은 결속적 네트워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SNS 이용은 교량적 네트워크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정보기술 또는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Dittmar, Long, & Meek, 2004; Oumil & Erdem, 1997; Venkatesh et al., 2003). 여성의 경우 주로 타인과의 교류와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하며, 남성은 정보기술 이용에 있어 실질적 효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정보기술 이용동기나 목적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가설6-1〉 성별은 SNS 이용에 대한 태도와 SNS 이용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6-2〉 성별은 주관적 규범과 SNS 이용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6-3〉 성별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과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가족 및 친지와 같이 친밀하고 가까운 사회적 관계망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은 직장 동료와 같이 사회적이고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선호한다(박희봉, 이희창, 2006; 신소연, 이상우, 2012; Marsden, 1987; Wellman, 1985).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된 주장은

여성의 경우 동질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결속적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을 더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성은 이질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과의 결속적 네트워크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다. 결국 이러한 논의들은 성별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범위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추론해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7-1〉 성별은 SNS 이용과 결속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7-2〉 성별은 SNS 이용과 교량적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SNS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20~30대 이용자들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SNS를 포함한 정보기술 수용에 적극적이며 이용도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명규, 류정호, 2007; 이유진,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이용하고 있는 20~30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온라인 설문을 통해 2012년 7월 한 달 간 이루어졌다. 직접 방문에 의한 조사는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중 156명이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는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3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191부

가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통해 분석되었는데,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M), 조절효과분석(moderating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이며 일부 측정문항의 경우 연구주제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측정항목은 SNS 이용에 대한 태도(3개), 주관적 규범(3개), 지각된 행동 통제(3개), SNS 이용(3개), 결속적 네트워크(3개), 교량적 네트워크(3개) 등 총 18개 문항(인구통계학적 문항 제외)이며, Likert 5점 척도(①:매우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표 1〉 참조).

4. 분석결과

4.1 표본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8.1%(111명)로 남성 41.9%(80명)

보다 많았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8.1%(130명)로 30대 31.9%(61명)보다 많았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41.9%(80명), 회사원 33.0%(63명), 공무원 8.4%(16명), 자영업 3.7%(7명), 주부 2.6%(5명), 기타 10.5%(20명)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대졸자(재학중 포함)가 53.9%(103명)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15.7%(30명), 대학원 졸업 이상 15.2%(29명), 고졸 이하 15.2%(29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경우 400만 원 이상이 26.2%(50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20.4%(39명),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19.4%(37명),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8.8%(36명),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가 15.2%(29명)로 나타났다.¹⁾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 분석결과 Cronbach's α 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잠재변수별 측정변수의 Cronbach's α 가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정문항이 해당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수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검토한 결과, 개념신뢰도는 0.8 이상, AVE는 0.6 이상으로

1) 인구통계학적 요인별 표본수가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표본특성에 관한 빈도분석시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표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측정도구

변수	측정항목	선행연구
SNS 이용에 대한 태도	1. 나는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2. 정보사회에서 SNS를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3. SN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Chow & Chen(2009) Jamil & Mat(2011)
주관적 규범	1. 내 주변사람들은 SNS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2. 내 주변사람들은 함께 SNS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3.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은 SNS 이용을 권유한다.	
지각된 행동통제	1.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SNS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나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있다.	
SNS 이용	1. 나는 자주 SNS를 이용한다. 2. 나는 자주 SNS에 접속한다. 3. 나는 자주 SNS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확인한다.	Cheung, Chang, & Lai(2000) Chow & Chen(2009)
결속적 네트워크	1. 나는 SNS를 통해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2. 나는 SNS를 통해 나와 같은 관심을 지닌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3. 나는 SNS를 통해 나와 같은 문화의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	금희조(2010) 김봉섭(2010)
교량적 네트워크	1. 나는 SNS를 통해 다른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2. 나는 SNS를 통해 나와 다른 관심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3. 나는 SNS를 통해 나와 다른 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표 2>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S.E.)	t 값	Cronbach's α	개념 신뢰도	AVE
SNS 이용에 대한 태도	AT1	.935	.804	.077	12.079	.862	.897	.744
	AT2	1.045	.845	.082	12.758			
	AT3	1.000	.822					
주관적 규범	SN1	.869	.753	.080	10.803	.847	.858	.669
	SN2	1.046	.854	.085	12.252			
	SN3	1.000	.809					
지각된 행동통제	BC1	.964	.818	.086	11.152	.861	.912	.777
	BC2	1.176	.911	.100	11.815			
	BC3	1.000	.746					
SNS 이용	USE1	1.026	.949	.049	20.764	.902	.832	.842
	USE2	1.064	.957	.050	21.109			
	USE3	1.000	.878					
결속적 네트워크	BO1	.836	.835	.051	16.418	.947	.867	.810
	BO2	1.041	.936	.050	21.026			
	BO3	1.000	.913					
교량적 네트워크	BR1	.895	.791	.062	14.359	.920	.844	.847
	BR2	1.004	.913	.053	18.811			
	BR3	1.000	.909					

$\chi^2 = 189.027$, GFI = .904, RMR = .035, AGFI = .864, NFI = .934, TLI = .974, CFI = .974, RMSEA = .055

〈표 3〉 판별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성 개념	Mean	St.D	①	②	③	④	⑤	⑥
① SNS 이용에 대한 태도	3.57	.756	.863					
② 주관적 규범	3.19	.844	.550**	0.818				
③ 지각된 행동통제	4.04	.697	.489**	.272**	0.881			
④ SNS 이용	3.18	1.104	.537**	.607**	.325**	0.918		
⑤ 결속적 네트워크	3.61	.786	.473**	.412**	.442**	.446**	0.900	
⑥ 교량적 네트워크	3.60	.749	.468**	.392**	.405**	.373**	.746**	0.920

**p<0.01.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참조).²⁾ 한편 판별타당성은 Fornell과 Larcker(1981)가 제시한 AVE의 제곱근값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구성개념에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 값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잠재변수별 측정변수들은 집중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3 가설검증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χ^2 은 194.29(자유도=121, p<0.01)이고, χ^2 를 자유도로 나눈 값인 Q는 1.606, GFI 0.902,

AGFI는 0.862, RMR은 0.069, RMSEA는 0.056로 나타났으며, NFI는 0.930, TLI는 0.965, CFI는 0.972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형적합도 지수 중 RMR을 제외한 모두가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조방정식 모형이 실제 자료와 비교적 잘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SEM 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SNS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SNS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SNS 이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태도와 SNS 이용 간의 경로계수는 0.343(t=2.373)이고, 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주관적 규범과 SNS 이용 간의 경로계수는 0.660(t=5.701)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경로계수는 0.224(t=1.757)이고,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통제는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2)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AVE는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Hair et al., 1998).

〈표 4〉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내용	방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t	Sig.	검증 결과
가설1	SNS 이용에 대한 태도 → SNS 이용	+	.343*	.226	.144	2.373	.018	채택
가설2	주관적 규범 → SNS 이용	+	.660**	.494	.116	5.701	.000	채택
가설3	지각된 행동통제 → SNS 이용	+	.224 ⁺	.126	.127	1.757	.079	채택
가설4	SNS 이용 → 결속적 네트워크	+	.339**	.444	.051	6.698	.000	채택
가설5	SNS 이용 → 교량적 네트워크	+	.327**	.494	.050	6.511	.000	채택

⁺p<0.1, *p<0.05, **p<0.01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변 인물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추천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그리고 SNS 이용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많다고 인지할수록 SNS 이용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NS 이용과 네트워크 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SNS 이용이 결속적, 교량적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NS 이용과 결속적 네트워크 간의 경로계수는 0.339 (t=6.698) 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이 결속적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채택되었다. SNS 이용과 교량적 네트워크 간의 경로계수는 0.327(t=6.511) 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성별(남성: N=88, 여성: N=111)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를 χ^2 차이검증에 의해 분석하기 위해 3단계로 분석한다(배병렬, 2011, pp. 401-402). 첫째, 성별이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 그리고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다. 둘째, 성별이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 그리고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가 성별에 대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등가 제약모델(equality constrained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 모델은 독립변수와 성별 간에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1단계 분석의 χ^2 값과 2단계 분석의 χ^2 값의 차이를 구해 χ^2 값의 차이를 토대로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χ^2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성별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배병렬, 2011, pp. 401-402).

첫째,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관계에서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 차이검증 결과(태도: $\chi^2(1) = 0.036$, 주관적 규범: $\chi^2(1) = 0.036$, 지각된 행

〈표 5〉 조절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등가제약모형 χ^2	$\Delta\chi^2$	개별 표본분석 비표준화계수		개별 표본분석 표준화계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SNS 이용에 대한 태도	SNS 이용	398,595	0,036	0,482*	0,422 ⁺	0,371	0,238
주관적 규범		398,586	0,027	0,568**	0,528**	0,439	0,408
지각된 행동통제		398,719	0,160	0,089	0,190	0,052	0,115
SNS 이용	결속적 네트워크	402,637	4,078	0,437**	0,222**	0,515	0,318
	교량적 네트워크	408,067	9,508	0,477**	0,155 ⁺	0,668	0,242

비제약모형의 $\chi^2 = 398,559(df = 242)$

⁺p<0.1, *p<0.05, **p<0.01

동통제: $\chi^2(1) = 0.160$ 가 각각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성별이 태도와 SNS 이용, 주관적 규범과 SNS 이용,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6-1〉과 〈가설6-2〉, 〈가설6-3〉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속적, 교량적 네트워크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SNS 이용과 결속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의 경우,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chi^2(243) = 402.64$ 이며, χ^2 차이는 $\chi^2(1) = 4.078$ 로 나타나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성별은 SNS 이용과 결속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7-1〉은 채택되었다. SNS 이용과 교량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의 경우,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chi^2(243) = 408.07$ 로 나타났다. χ^2 차이검증 결과, $\chi^2(1) = 9.508$ 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SNS 이용과 교량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

이라는 〈가설7-2〉도 채택되었다.

남성의 경우 SNS 이용이 결속적 네트워크(0.515) 보다는 교량적 네트워크(0.668)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량적 네트워크(0.242)보다 결속적 네트워크(0.318)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SNS 이용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여성은 교량적 네트워크보다는 결속적 네트워크, 남성은 결속적 네트워크보다는 교량적 네트워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30대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 이용에 대한 태도와 SNS 이용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는 Jamil과 Mat(2011), Albrecht와 Carpenter(1976), Bajaj와 Nidumolu(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SNS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SNS 이용을 의미 있는 행위로 생각하는 이용자일수록 SNS 이용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주관적 규범은 SNS 이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 규범이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이는 Chow와 Chen(2009), Cheung, Chang, Lai(2000), Thompson, Higgins, Howell(199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준거인들이 SNS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추천할수록, 그리고 사용자가 이러한 주변의 압력을 강하게 인지할수록 SNS 이용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행동통제가 SNS 이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 역시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일수록 SNS 이용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점과 SNS 이용방법이 특별히 어렵지 않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은 결속적 네트워크와 교량적 네트워크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SNS 이용이 결속적, 교량적 네트워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4>와 <가설5>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SNS가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llison, Steinfeld, Lampe(2007), Steinfield, Ellison, Lampe(2008), Ahn(2012), 김희조(2010) 등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SNS 이용을 통해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이용자들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SNS를 통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특정 공동체의 사회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의 타당성을 제공하는 실증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와 관련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SNS 이용과 그 영향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SNS 이용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6-1>, <가설6-2>, <가설6-3>은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만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은 SNS 이용과 결속적/교량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7-1)과 <가설7-2)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될 수도 있고 약하게 형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SNS 이용을 통해 여성은 교량적 네트워크보다는 결속적 네트워크에, 남성은 결속적 네트워크보다는 교량적 네트워크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지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함의로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이 실증한 바처럼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기사용자의 경우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즉, 정보기술이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초기수용과 지속적 사용 과정의 차이를 강조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인 동시에 SNS 이용행위를 설명·예측하는데 있어서 TPB의 적용타당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SNS 초기수용자와 지속적 이용자들 간의 SNS 이용행위 구조와 상대적 영향력 차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SNS가 개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동안 SNS 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정치참여나 사회자본의 증대 등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SNS 이용이 실제 이용자들의 결속적, 교량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특히 SNS 결속적 네트워크보다는 이용자들의 교량적 네트워크에 더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SNS를 비롯해 향후 새롭게 등장할 소셜미디어와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논의에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무적으로 SNS는 기존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 강화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SNS 이용이 항상 순기능적이고 긍정적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SNS의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성숙된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하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질적으로 성숙될 때 이용자들 간의 건전한 공론 형성과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영향관계에서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향후 SNS 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양상논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무적으로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SNS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영리기관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고객의 특성과 SNS 활용 목적을 연계시킬 경우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보다는 기존 네트워크의 결속과 응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SNS 이용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폭넓

은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SNS 주이용 계층인 20~30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들을 대상에 포함시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내원, 안순철, 서형석 (2010). 다매체시대의 뉴스이용과 사회자본 형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유주제 연구보고서 2010-0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Retrieved from <http://download.kpf.or.kr/MediaPds/MBSAIXPWKFKGPLG.pdf>
- 곽현근, 유현숙 (2011).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 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5(2), 61-91.
-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9-46.
- 김봉섭 (2010). 블로그 이용에 따른 사회적 연결망 유형과 사회자본 효과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73-104.
- 김성훈, 김한주 (2012). 프로야구단 SNS 이용동기와 인지된 가치 및 참여지속의도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675-684.
- 김위근, 최민재 (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이용동기가 실제 이용과 메시지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미투데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0, 150-171.
- 노지영, 주효진 (2012). SNS 이용목적이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261-281.
- 박용석, 이경미, 이지원 (2012). SNS를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의 형태가 소비자 제품선택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1(6), 1619-1641.
- 박희봉, 이희창 (2006). 사회자본과 양성평등: 사회자본의 성별 특성과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91-116.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배진한 (2006). 공적공간의 유형과 성별·연령·라이프스타일 등 수용자의 인적 속성이 모바일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6(4), 133-171.
- 서우중, 원옥연, 홍진원 (2010). SNS 웹 사이트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혁신연구, 26(1), 99-132.

- 석승혜, 김문조, 유승호, 정의준 (2013). 유명인 매개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SNS이용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1), 93-143.
- 성혜진, 고재운 (2012). 외식소비자 SNS 정보품질 특성이 만족과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기술수용모델(ETAM)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4(2), 197-216.
- 송경재 (2010). 미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특성과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6(3), 129-157.
- 신소연, 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191-232.
- 심홍진, 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2), 192-234.
- 안명규, 류정호 (2007). 인터넷 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 이용자의 정치심리변수와 인터넷 사회자본(e-social capital)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1), 113-148.
- 윤미선, 이종혁 (2012). 소셜미디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3(2), 5-44.
- 이동후, 손승혜 (2006). 휴대전화 이용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1), 249-284.
- 이승민 (2013). 스마트기기와 SNS 활용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161-180.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161>
- 이유진 (2005). 젊은 네티즌의 온라인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21세기 정치학회보, 15(3), 49-68.
- 이혜인, 배영 (2011).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1, 35-71.
- 이흥재, 최문형, 박미경 (2012). SNS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사용자 인지요인이 SNS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29(3), 145-167.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145>
- 이흥재 (2013).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학습공동체(CoP) 참여와 성과.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6(1), 35-57.
- 정혜선, 기미영, 구정완, 장원기 (2003). 계획적 행위이론을 적용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행위 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4(4), 639-645.
- 최영, 박성현 (2011). 소셜미디어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최지은, 이두희 (2013). SNS의 네트워크 특성이 사용자의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2(3), 719-741.
- 허승태 (2012). 소셜 네트워크(SNS) 이용이 수용자의 정치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SNS 이용빈도 및 이용목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4), 575-606.
- 한덕웅 (2006). 인간의 동기심리. 서울: 박영사.

- Ahn, J. (2012). Teenagers' experiences with social network sites: Relationships to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The Information Society*, 28, 99-109.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Milton-Keynes, England: Open University Press & Chicago, IL: Dorsey Press.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2), 179-211.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http://dx.doi.org/10.1111/j.1559-1816.2002.tb00236.x>
- Albrecht, S. L., & Carpenter, K. E. (1976). Attitudes as predictors of behavior versus behavior intentions: A convergence of research traditions. *Sociometry*, 39(1), 1-10.
- Bajaj, A., & Nidumolu, S. R. (1998). A feedback model to understand information system usage. *Information & Management*, 33, 213-224.
- Bargh, J., & McKenna, K.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1), 573-590.
- Chen, H. (2012).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behavior of SNS user. *Journal of software*, 7(6), 1265-1272.
- Chen, V. H., Goh, T., & Li, W. (2010,11,14). Welcome to facebook: How facebook influences parent-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Conference of Taiwan Academy for Information Society, Jiao Tong University, Taiwan. Retrieved from
<http://owni.fr/files/2010/10/Welcome-to-Facebook-How-Facebook-influences-Parent-child-relationship.pdf>
- Cheung, W., Chang, M. K., & Lai, V. S. (2000). Prediction of internet and world wide web usage at work: A test of an extended triandis model. *Decision Support Systems*, 30(1), 83-100.
[http://dx.doi.org/10.1016/S0167-9236\(00\)00125-1](http://dx.doi.org/10.1016/S0167-9236(00)00125-1)
- Choi, G., & Chung, H. (2012). Elaborat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ith social pressure and social benefits for social networking sites (SNS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9(1), 1-3.
<http://dx.doi.org/10.1002/meet.14504901376>
- Chow, W. S., & Chen, Y. (2009). Intended belief and actual behavior in green computing in Hong Kong.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50(2), 136-141.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ittmar, H., Long, K., & Meek, R. (2004). Buying on the internet: Gender difference in on-line and conventional buying motivation. *Sex Roles*, 50, 423-444.
- Donath, J., & boyd, D. (2004).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22(4), 71-82.
- Ellison, N. B.,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1143-1168.
<http://dx.doi.org/10.1111/j.1083-6101.2007.00367.x>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116-142.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n,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Hwang, Y. (2010).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e-commerce systems adoption factors: An empirical investig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753-1760.
<http://dx.doi.org/10.1016/j.chb.2010.07.002>
- Jamil, M. A., & Mat, N. K. (2011). To investigate the drivers of online purchasing behaviour in malaysia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pproa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2011 (ICM 2011) Proceeding*, 443-460.
- Katz, J. E., & Rice, R. E. (2002). *Social consequences of internet use: access, involvement and intera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Kraut, R., &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Kwon, O., & Wen, Y. (2010). An empirical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network servic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2), 254-263.
<http://dx.doi.org/10.1016/j.chb.2009.04.011>
- Lin, K. Y., & Lu, H. P. (2011). Why people use social networking sites: An empirical study integrating network externalities and motivation theor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3), 1152-1161. <http://dx.doi.org/10.1016/j.chb.2010.12.009>

- Liu, Y., & Tsai, Y. R. (2012). The impact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on college students' social relationship and privat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and Commerce*, 1(4), 1-10.
- Luo, X. (2002).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and e-consumer behavior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udy.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2(2), 34-41. Retrieved from <http://jiad.org/article22.html>
- Marsden, P. V. (1987). Core discussion networks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1), 122-131.
- Nie, N. H. (2001). Soci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Internet: Reconciling conflicting finding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20-435. <http://dx.doi.org/10.1177/00027640121957277>
- Nie, N. H., Hillygus, D. S., & Erbring, L. (2002). Internet us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bility: A time diary study. In Wellman, B. and Haythornthwaite, C. (Eds.), *The Internet in everyday life*, Oxford: Blackwell, 251-243.
- Nysveen, H., Pedersen, P. E., & Thorbjørnsen, H. (2005). Explaining intention to use mobile chat services: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2(5), 247-256. <http://dx.doi.org/10.1108/07363760510611671>
- Oumil, A. B., & Erdem, O. (1997). Self-concept by gender: A focus on male-female consumer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5, 7-14.
- Pai, F. Y., & Huang, K. (2011). Apply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the introduction of healthcare 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 Forecasting & Social Change*, 78(4), 650-660. <http://dx.doi.org/10.1016/j.techfore.2010.11.007>
- Pasek, J., More, E., & Romer, D. (2008). Realizing the social internet? Online social networking meets offline social capital. *Web 2.0: An International Conference*, 1-36.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Civic disengagement in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hah, D. V., Kwak, N., & Holbert, R. L.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2), 141-162.
- Smock, A. D., Ellison, N. B., Lampe, C., & Wohn, D. Y. (2011). Facebook as a toolkit: A uses and gratification approach to unbundling feature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6), 2322-2329. <http://dx.doi.org/10.1016/j.chb.2011.07.011>
- Steinfeld, C., Ellison, N. B., & Lampe, C. (2008).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34-445. <http://dx.doi.org/10.1016/j.appdev.2008.07.002>

- Stone, T. H., Jawahar, I. M., & Kisamore, J. L. (2010). Predicting academic misconduct intentions and behavior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ersonali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2(1), 35-45. <http://dx.doi.org/10.1080/0197353090353989>
- Thompson, R. L., Higgins, C. A., & Howell, J. M. (1991). Personal computing: Toward a conceptual model of utilization. *MIS Quarterly*, 15(1), 125-143.
-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 Davis, F. D.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478.
- Vitak, J., Eliason, N. B., & Steinfield, C. (2011). The ties that bond: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use and bonding social capital. *Proceedings of the 44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2011*, 1-10.
- Wellman, B. (1985). Domestic work, paid work and net work. In Steve Duck & Daniel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159-191. London: Sage.
-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628. <http://dx.doi.org/10.1111/j.1083-6101.2006.00029>.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hn, Myoung-Gyu, & Ryu, Jung-Ho (2007). A exploratory study of the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factor.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3(1), 113-148.
- Bae, Byung-Ryul (2011). *Amos 1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heongRam.
- Bae, Jin Han (2006). An impact of types of public places and human factors of users on uses of mobile cont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6(4), 133-171.
- Choi, Ji-Eun, & Lee, Doo-Hee (2013). The impact of SNS network's features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Korean Management Review*, 42(3), 719-741.
- Choi, Young, & Park, SungHyun (2011).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age on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5(2), 241-276.
- Ha, Seungtae (2012).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and socio-politic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4), 575-606.
- Han, Doug-woong (2006). *Psychology of human motivation*. Seoul: Parkyoungsa.
- Jung, Hye Sun, Gee, Mee Young, Koo, Jung Wan, & Jhang, Won Gi (2003). Analysis of the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4(4), 639-645.
- Kang, Nae-Won, Ahn, Soon-Cheol, & Seo, Hyng-Suk (2010). Multimedia time, new usage and social capital building.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1-84. Retrieved from <http://download.kpf.or.kr/MediaPds/MBSAIXPWKFKGPLG.pdf>
- Keum, HeeJo (2010). The effects of social media on participatory social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bridging and bonding network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4(5), 9-46.
- Kim, Bong-Sub (2010).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hip and social capital effect caused by blog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2), 73-104.
- Kim, Sung-Hun, & Kim, Han-Joo (2012). Relationship between use motives of SNS and perceived value and continuance intention in professional baseball team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1(2), 675-684.
- Kim, WiGeun, & Choi, MinJae (2012). The effect of SNS users' use motivations on using SNS and recognizing characteristics of SNS messages: Focused on the comparison among 'facebook', 'twitter', 'cyworld', and 'me2day'.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60, 150-171.
- Kwak, Hyon-Kun, & Yoo, Hyeon-Sook (2011). A study about effects of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on cognitive social capital.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5(2), 61-91.
- Lee, Dong-Hoo, & Sohn, Seung-Hye (2006). Is there a gender difference in mobile phone usag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0(1), 249-284.
- Lee, Eugene (2005). Young netizens' online participation: Motives and implication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15(3), 49-68.
- Lee, Hong-Jae (2013).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of practice and performance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6(1), 35-57.
- Lee, Hong-Jae, Choi, Moon-Hyeong, & Park, Mi-Kyung (2012).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user's cognitive factors on reuse intention of S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45-167.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145>
- Lee, HyeIn, & Bae, Young (2011). A study on the use of smart phone and social capital: The effect of usage motivation and degree of usage in smart phone on social capital. The Information and Society, 21, 35-71.
- Lee, Seungmin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smart device and SNS on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161-180.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161>

- Pak, Yong Suhk, Lee, Kyoungmi, & Lee, Jiwon (2012). The types of social capital formed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and their effects on consumer preference for a product type. *Korean Management Review*, 41(6), 1619-1641.
- Park, Hee-Bong, & Lee Hee-Chang (2006). Social capital and gender equality. *Korean Policy Science Review*, 10(4), 91-116.
- Roh, JiYoung, & Ju, HyoJin (2012). An experienti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usage motivation on on-line soci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6(2), 261-281.
- Seong, Hye-Jin, & Ko, Jae-Youn (2012). The effect of SNS information quality characteristics on the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of continuous use: Based on ETAM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4(2), 197-216.
- Shim, Hong-Jin, & Hwang, Yoosun (2010). Micro-blogging on uses and gratification perspectives: twitter.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4(2), 192-234.
- Shin, So-Yeon, & Lee, Sang-Woo (2012).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Focusing on twitter &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4), 191-232.
- Song, Kyeong Jae (2010). A study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U.S. social network services use. *Korean and World Politics*, 26(3), 129-157.
- Suh, Woojong, Won, Wookyeon, & Hong, Jinwon (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SNS website quality factors on the user satisfaction, intention of continuous use, and intention of words-of-mouth. *The Journal of Industrial Innovation*, 26(1), 99-132.
- Suk, Seung-Hye, Kim, Moon-Cho, Ryu, Seung-Ho, & Jeoung, Eui-Jun (2013). A study of the effect of celebrity-mediated networks on social capital: Focusing on social network service user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30(1), 93-143.
- Yoon, Mi-sun, & Lee, Jong Hyuk (2012). Antecedents of social media use, actual use, and social capital.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3(2), 5-44.